

ICCAT 패널1 회기간 회의 참석 결과

□ 회의 개요

- (일시/장소) '23.3.27(월)~3.31(금) (출장기간 3.25~4.2)/ 포르투갈 리스본
- (참석자) EU, 아프리카, 중남미 약 30개 CPC 대표자, 7개 NGO
 - * (한국대표단) 해수부 국총과 심수빈 사무관, 원협 백상진 주임, 센터 양재걸 전문관

□ 회의 주요내용

1. 눈다랑어 총허용어획량(TAC)

- 논의 배경
 - 눈다랑어 자원상태 개선에 따른 TAC 증가폭을 논의(현 TAC : 6.2만톤)
- 논의 내용
 - 일본, 미국, 영국 등은 자원상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사전예방적인 수준의 TAC* 설정을 주장
 - * Kobe 매트릭스 녹색영역에 위치할 가능성 70%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TAC
 - 중미 국가들은 Kobe 매트릭스 70% 이상은 ICCAT 다른 어종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수치이므로 수용 불가하고 TAC 7.3~7.5만톤을 주장
 - EU는 할당 논의 수월을 위해 TAC 7.5만톤이 필요함을 강조
 - 일본은 두 입장을 절충하기 위한 어획통제규칙*을 제안
 - * 차기 자원평가('24년/'25년) 결과를 토대로, '28/'34년에 자원상태가 Kobe 매트릭스 녹색영역에 위치할 가능성이 70%/60% 이상이 되도록 TAC를 증감
- 논의 결과
 - 합의사항 없이 2차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

2. 눈다랑어 어획 할당

○ 논의 배경

- TAC 증가분을 배분하고 연안개도국들의 조업기회 증가를 고려한 새로운 할당 방식을 논의

○ 논의 내용

- 연안개도국들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할당을 소수 CPC들이 차지하여 왔음을 언급하고 연안개도CPC들을 위한 보다 공정한 할당을 주장
- EU는 작년 연례회의에 제출한 제안서*를 다시 제출하고 할당에 관한 근본 원리들부터 논의해야 함을 강조

* 할당 고려 요소 : 16-01에서 구속적인 어획한도 유무, CPC 유형(연안개도국, 연안국, 원양조업국), 최근 어획량, 영세어업, 경제개발 정도

- EU는 또한, 모든 CPC에 대한 어획한도 설정의 필요, 기준연도를 토대로 한 어획 능력 동결과 조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을 제안함
- 일본은 현재 어획한도(19-02)를 토대로 CPC 유형별로 점진적인 어획한도의 조정 및 미사용 어획한도 재배분 매커니즘을 제안
- 일부 CPC들은 할당 논의의 토대가 되는 시작점을 명확히 할 필요성과 시작점 설정의 기준연도 및 어획 데이터에 대한 이의를 제기
- 어획량 1천톤 미만인 소규모 어획국들(D그룹)은 소규모 어획국들의 어업개발권을 저해하는 한도 및 능력 제한은 수용 불가함을 주장
- 중국은 TAC 증가 상황에서 어획한도 감소는 수용하기 어렵고, 16-01 테이블 내 CPC들은 할당 논의의 시작점이 동 테이블에서 명시된 수치가 되어야 함을 주장

○ 논의 결과

- 합의사항 없이 2차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

3. 어류군집장치(FAD) 관리

○ 논의 배경

- TAC 증가로 어획 노력이 증가할 경우, 일부 CPC들(미국, 영국, 캐나다, 남아공 등)은 치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(FAD 통제) 도입*을 주장

* 현행(22-01) FAD 조치 : 금어기 72일(1.1~3.13), 선망선 1척당 최대 300개까지 투척

○ 논의 내용

- 중미CPC들은 현행 FAD 조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때 너무 과도한 조치이므로 금어기를 2개월(고정 1개월 + 선택 1개월)로 단축해 줄 것을 요구
- 과테말라는 FAD 규제 강화를 위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를 과학위에 질문하고 선망선 음향측심기 풍도지수를 통해서도 자원상태가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을 언급
- 과학위 의장은 어법별로 어획 노력이 자원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고, 치어 어획량 증가는 지속가능한 생산량(MSY) 감소를 가져올 것임을 언급하고, 치어 어획량을 증가시킬 것인지는 관리자들에 의한 판단사항임을 언급
- 미국, 영국, 캐나다 등은 TAC를 7만톤 이상으로 증가시킬 경우, 치어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FAD 규제가 필요함을 주장
- 일본, EU는 FAD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은 어려우므로 최소한 현행 조치는 유지되어야 함을 언급
- 일본은 올해 과학위에서 FAD 세트 수 제한에 관한 조언이 제공되면 세트 수 규제에 가야 함을 언급
- EU는 FAD 소유·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FAD 등록부 설치를 제안

○ 논의 결과

- 합의사항 없이 2차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

4. 기타 논의

○ 세네갈 초과어획에 대한 페이백 계획

- 세네갈은 '20년도에 발생한 초과어획(약 1,300톤)에 대해 향후 10년에 걸쳐 페이백(반납)하는 계획을 제출
- 일본과 미국은 권고에 이러한 페이백을 허용하는 근거가 없고, 본 회의에서 동 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언급하였으나, 계획에 반대하는 CPC는 없었고 우호적으로 처리하자는 분위기였음
- 세네갈 페이백 계획은 연례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논의하고, 금년에 세네갈은 초과어획량 1/10을 차감한 어획한도를 적용하기로 함

○ 향후 열대다랑어 논의 계획 - 2차 회기간 회의까지 서면 논의 진행

- (1라운드) CPC 의견 제출(~4.14), 사무국에서 번역하여 회람(~4.24)
- (2라운드) CPC 의견 제출(~5.19), 사무국에서 번역하여 회람(~5.29)
- (신규제안서) 2차 회의(6.20~22/스페인)를 위한 제안서 제출(~6.9)

□ 관찰 및 평가

○ 급진적인 제안들에 대한 소모적인 논의 지양 필요

- 본 회의에서 이루어진 TAC, 할당, FAD 등에 대해 이루어진 논의 내용은 작년 회기간 회의, 연례회의에서 이루어진 것과 거의 동일했음
- 제안들에 대한 CPC들의 입장이 변하기 어렵고, 협상 전술적 차원에서 CPC들이 마지막 단계까지는 강경한 태도를 가지기 마련임
- 그러나 상대가 수용하기 어려운 급진적인 제안을 하고, 이에 대해 플로어에서 상호 이견만 계속 오가는 논의는 모두에게 이롭지 않음
- 회기간 CPC들의 양자·다자 비공식 협의를 통해 이견 있는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

○ ‘최근 어획량’을 어획 할당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의 문제점

- 협상의 가장 첨예한 사안인 눈다랑어 어획 할당 방식에 대하여, 일부 제안서들은 ‘최근 어획량’을 주된 할당기준으로 제안하고 있음
 - *조업기회 할당기준에 관한 ICCAT 결의(15-13)*에 명시된 요소는 ‘최근 어획량’이 아닌 ‘역사적 어획’으로, ‘최근 어획량’은 자원상태가 악화되어 전체 어획량을 급하게 감축시켜야 했던 ’19년에 잠정적으로 도입된 기준이었음
 - 장기적인 할당기준으로 ‘최근 어획량’을 주된 요소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ICCAT 결의와도 부합되지 않고, 구속력 있는 어획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D그룹 CPC들의 어획노력 경주를 촉발할 우려가 있음*
- * 16-01에서 구속적인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CPC가 기준점을 초과하여 구속적인 한도가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, 이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, 결국 규제 없이 경주한 어획량으로 어획한도가 설정(19-02)된 선례가 있음
- 최근에 열대다랑어 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안개도국들을 고려하여, ‘최근 어획량’도 할당기준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지만, 역사적으로 이 어업에 참여해 오고 있는 CPC들의 권리도 존중될 필요가 있고,
 - 현재 구속적인 한도가 설정되고 있지 않은 D그룹 CPC들이 기준점을 초과할 경우, 구속적인 한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규칙이 최종 협상 패키지의 일부로써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. 끝.